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연구

정보원 신뢰도, 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김영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
김수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 과정

이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위험 정보 추구·처리(RISP)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 변수와 한국적인 문화변인으로서 평등주의, 개인주의, 체면을 통제하여 연구하였을 때,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의 양이 피상적인 정보처리를 하지 않도록 이끌며, 현재 자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정보의 체계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쓸모 있는 일이라고 믿는 태도와 기후변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믿음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처리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은 조절 효과를 갖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이론적이며 실용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핵심어: 기후변화, 위험 정보 추구·처리 모델, 행동에 대한 태도

* kimyw@ewha.ac.kr, 교신저자

1. 서론

2016년에 일어난 가장 주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파리협정은 이번 세기에 상승하는 기온의 폭을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이전의 환경 규제 협약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파리협정은 국가의 발전 속도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에서 미국을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노력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탈퇴 선언 이후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파리협정에 남아 있는 국가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의 경우, 1990년 대비 2015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152.9%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7). 게다가 기후변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2100년까지 온도가 4도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홍수와 식량 생산량 감소,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누적 피해비용은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14년에 들어서야 2013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이는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적 실패는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찾고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위험 정보 추구·처리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모델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기후변화 위험 정보를 어떻게 찾고 이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RISP 모델은 개인이 어떻게 위험 정보를 찾고 처리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위험 인식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모델이다(Yang, Aloe, & Feeley, 2014). 이 모델은 원래 인지적 및 사회 심리적 변수와 함께 특정한 환경 위험이나 건강 위험 정보에 대한 사람

들의 충분성 인식이 사람들의 정보 추구 및 정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개발된 모델이다(Yang et al., 2014a). 위험 정보 추구·처리 모델(RISP)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 인식과 미디어 정보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의 정보 추구 양상을 보이게 된다(Griffin, Neuwirth, Dunwoody, & Giese, 2004; Yang & Kahlor, 2012; Yang et al., 2014a).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변수가 가지는 영향력과 심리적인 변인들의 전반적인 작용을 보기 위한 연구의 전 단계로서, RISP 모델의 중요변수인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 및 처리와의 관계, 이와 관련한 정보원에 대한 신뢰, 행동 태도,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위험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McComas, 2006).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적인 공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2. 문헌연구

1) RISP 모델과 환경 이슈

위험 정보 탐색 및 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은 위험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는 사회, 심리,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한 통합적인 모델 중 하나이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이 모델은 첸과 차이켄(Chen & Chaiken, 1999)이 개발한 주변적-체계적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 HSM)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가늠하는 것이 위험 정보를 처리하는데 들이는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이미 충분히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면 노력을 적게 들이는 주변적 처리를 할 것이고, 위험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면 노력을 많이 들이는 체계적 처리를 하리라는 것이다. RISP은 HSM, 에이젠(Ajzen, 1988; 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슬로비치(Slovic, 1987)의 심리 측정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을 모두 아우르는 모델이다. 기존 연

구를 기반으로 RISP모델은 위협 정보의 추구가 정보 불충분성, 주관적인 정보 규범,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정보 추구에 대한 믿음(관련 정보원에 대한 믿음),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RISP 모델은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와 정보 처리(Information Processing)를 종속변수로 하며 수용자가 위협을 인식했을 때 더 분석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혹은 빠르고 적은 노력으로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정보 처리 행태에 대한 논의는 적은 노력을 들여 표면적인 정보만을 처리하는 피상적(Heuristic)인 정보 처리 행태와 큰 노력을 들여 심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적(Systematic)인 정보 처리 행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HSM의 전통에서 기인한다. 또한 정보 추구 과정에서도 정보를 회피하려고 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지도 RISP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정보 추구 행태에 대한 논의는 노력과 강도에 따라 얼마나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지 연구했던 이용과 충족 이론의 전통에서 기인한다(Chaffee, 1986; Rubin, 2009). 정보 추구는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고 특정 정보원에 담긴 메시지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지적인 과정이다(Dunwoody & Griffin, 2015).

RISP 모델은 주요 독립 변수로 정보 불충분성(Information Insufficiency)을 삼는다. 정보 불충분성은 사람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가진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자신감과 만족도로 정의된다(Griffin, Dunwoody & Yang, 2012). 정보 불충분성은 HSM 에서 이야기하는 정확성 동기와 관련이 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안에 대해 정확한 태도와 믿음을 갖고자 하는가에 따라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한다(Chen & Chaiken, 1990).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정확성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얻고자 하게 되며 이는 결국 정보 추구 의도를 증가시킨다(Eagly & Chaiken, 1993). 많은 문헌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처리 형태의 상관관계를 지지하고 있다(Hwang & Jeong, 2016; ter Huurne, Griffin, & Gutteling, 2009; Griffin et al., 2008; Yang, Kahlor & Li, 2014).

RISP모델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이하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처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그림 1 참조). RISP 모델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정보를 찾거나 처리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정보 수집 능력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으로 설명되는 개념인 효능감과 같은 맥락에서 생겨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 수집 능력은 얼마나 개인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믿는지, 그리

고 그 정보를 자기가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이 있어야 사회적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고 여겼다(Yang & Kahlor, 2012). RISP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처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가정한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지식 격차 가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현재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판단한 정보 수집 능력 역시 향상된다고 한다(Griffin et al., 2004; Griffin et al., 2005).

정보 수집 능력이 개인이 자신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관련된 정보원에 대한 믿음(이하 '정보원 믿음')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에 대한 믿음을 지칭한다. 사람들은 기존에 본인이 체득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미디어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다. 정보원 믿음은 얼마나 언론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정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신호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다(Griffin et al., 2008). RISP에서는 정보원 믿음이 정보 추구·처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가정한다(Griffin et al., 1999).

최근에는 정보원 믿음이 다원화된 미디어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정보 추구·처리 행동에 대한 태도(이하 '행동 태도')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다. 기존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특정한 미디어를 지칭하여 정보원 믿음을 측정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한 가지 종류의 정보원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알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Yang et al., 2014a). 이는 무수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정보 추구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Kahlor, 2007, 2010; Yang & Kahlor, 2012; Yang et al., 2014a).

RISP모델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사람들의 정보 불충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가 위험의 체계적 처리에, 감정적인 평가가 위험의 피상적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HSM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Chen & Chaiken, 1999). 제도에 대한 신뢰와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한 발생 가능성,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한 심각성은 위험 인식의 인지적 측면으로 위험 정보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Zhao, Leiserowitz, Aibach, & Roser-Renouf, 2011). 한편,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정보 추구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Witte, 1994), 걱정과 같은 감정은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Yang et al., 2014a). 이 변수들은 슬로비치와 동료들이 제안한 학술적 전통을 따른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주관적인 규범은 한 그룹 내의 개인이 사회에서 공유되는 규칙이나 기대에 영향을 받아 행

동한다는, 심리학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Asch, 1956; Sherif, 1935). RISP모델에서 활용된 규범은 다른 사람들은 개인이 위협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기대하는가와 관련한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과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대로 행동하는가와 관련한 설명적 규범(Descriptive N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말하는 규범적 변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인 기대감이 개인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모든 변수는 크게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슬로비치는 심리 측정 패러다임을 통해 공중의 위험 인식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의 다차원적 측정 요소에 따라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 Combs, 1978;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4). RISP 모델은 관련 위험 경험이나 중시하는 가치, 인구통계학적 요소 및 사회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인지된 위험 특성과 주관적 규범, 정보원에 대한 믿음, 행동 태도,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RISP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위협에 대한 특성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이 어느 인구통계학적인 지위를 누리는데 따라 개인 주변의 규범이 변화한다는 점에서도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RISP 모델은 자연 재해(Yang & Kahlor, 2012; Huang & Yang, 2017)부터 금융 위험(Dong & Tam, 2013)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그 중 가장 고전적으로 연구되었던 것은 위협의 책임 소재를 알기 어려운 환경 재해에 대한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특정하지 않은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연구로도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다. RISP 연구는 경로 모형을 통해 문화 간의 차이에 인한 위험정보 추구·처리 유형(ter Huurne et al, 2009; Yang et al, 2014b)을 보기도 하고, 정보 불충분성에 따른 위험정보 추구·처리가 정책적 지지(Yang, Rickard, Harrison, & Seo, 2014; Huang & Yang, 2017)로 연결되는지도 알아보았다. 후양과 양의 연구(Huang & Yang, 2017)에서는 중국의 공기 오염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할 것인지를 RISP 모델을 통해 알아봤는데, 비록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정보를 아는지와 정보 탐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위협이 얼마나 주변에 잘 알려졌는지와 정보 탐색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보 탐색과 정책 지지 사이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결국 RISP모델의 초기 가설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협에 대해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보 추구·처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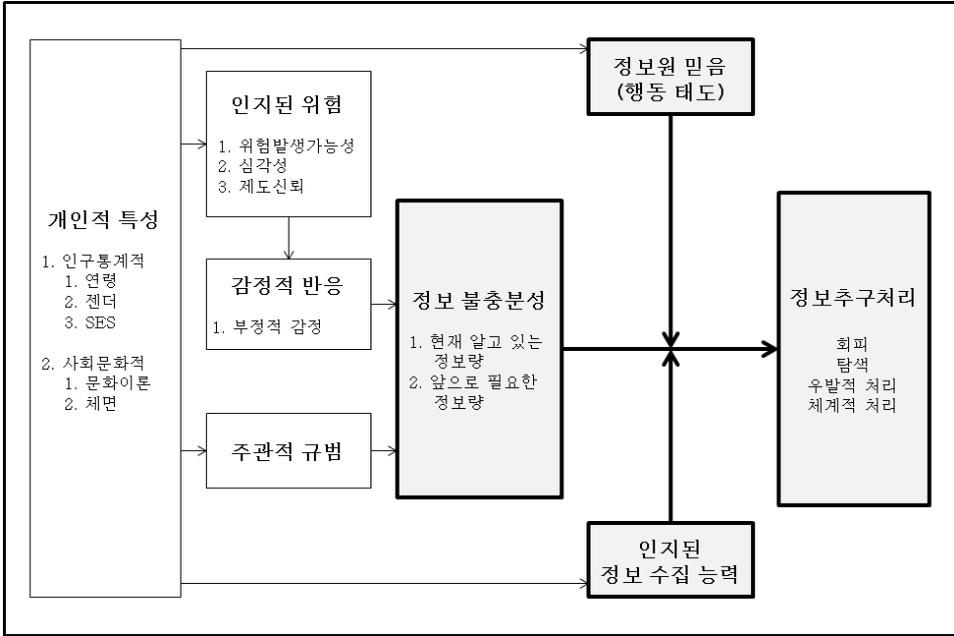


그림 1. 위험 정보 추구·처리(RISP) 모델

주: 회색 표시 부분이 이 연구에서 살펴본 부분

2) 한국적인 문화변수와 인지 심리변수의 통제

RISP 모델은 개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규범 또한 개인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개인의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정보원 믿음, 정보수집능력, 행동태도가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연 재해나 기술적 재해 등의 위험에 대해 갖는 인식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위험에 대한 문화 이론(이후 문화 이론)이 있다. 문화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집단성과 위계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는 각각 평등주의, 운명주의, 위계주의, 개인주의이다(Douglas & Wildavsky, 1982). 문화는 광범위하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 이론을 활용한 연구의 결과는 매번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개 위험에 대한 감정을 매개로 한 연구(Brenot, Bonnefous & Marris, 1998; Peters, Burraston, & Mertz, 2004; Yang & Kim, 2016)에서는 집단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성향과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Ellis & Thompson, 1997).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 세계관이 정보 추구·처리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화변수로서 체면을 추가하여 통제했다. 체면은 위험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루어졌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소속 집단에 의해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회적 체면은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개인적인 체면과는 달리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한국에서 두드러진다(Kim & Yang, 2011). 체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상진과 유승엽(1992)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체면이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인지를 밝혀낸 연구가 있다. 이들은 체면을 세우는 사람과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이 대화를 하도록 하는 실험을 통해 체면이 작용하는 양상을 밝혀내었다. 이런 체면은 한국인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강길호, 1992). 강길호(1992)는 얼마나 사람들이 체면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는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친다는 것을 밝혔다. 체면은 단순히 대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체면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위험 인식과 위험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체면 민감성이 감정적 반응을 매개로 식품 섭취 위험과 같은 위험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Yang & Kim, 2016). 게다가 체면 민감성은 불안한 상황에 있어 불확실성 회피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이충원·김효창, 2006).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RISP 에서는 개인이 정보의 불충분성을 느끼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관적인 정보 규범을 꼽는데, 이는 주변인이 개인에게 위험 정보 추구 행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체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면을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으로 나누어 통제하였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개념들은 RISP 모델에서 개인적 특성에 속한다. RISP 모델에 의하면 위험에 대한 인지, 주관적 규범, 정보의 불충분성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구성된 개인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오롯이 정보의 불충분성과 위험정보 추구·처리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조절하는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 행동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보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주변 사람들의 위험정보 추구·처리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지각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체면과 문화적 변수)과 함께 통제하였다.

3) RISP 모델 선행연구와 연구문제

RISP 모델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사항들이 도출 되었다. 첫 번째로, RISP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처리 정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보 불충분성은 개인이 위험을 자신감 있게 다루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의 양(Griffin et al., 2004)으로, 보통 정보 불충분성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의 양인 정보 임계치와 현재 본인이 알고 있다고 느낀 정보의 양인 현재 정보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 불충분성에 대한 연구를 보았을 때 RISP에서 가정하듯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처리 형태와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Hwang & Jeong, 2016; ter Huurne, Griffin, & Gutteling, 2009; Griffin et al., 2008; Yang, Kahlor & Li, 2015). 특히, 정보가 불충분할수록 사람들은 위험 정보를 더 탐색하거나 더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예를 들어, 실험을 통해 정보 임계치와 현재 정보량을 조작한 연구에 의하면 높은 정보 임계치가 높은 정보 탐색 의도와 정적 상관을 가졌다(Hwang & Jeong, 2016). 또한, 네덜란드와 미국의 시민들에게 가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 정보 탐색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 정보량과 정보 임계치가 정보 탐색과 정적 관계를 가진 경로를 보였으나, 미국의 경우 오로지 정보 임계치만 정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er Huurne et al, 2009). 연구자들은 이런 선행 연구를 따라 이 연구에서도 정보 임계치가 정보 탐색과 체계적인 정보 처리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보 회피와 피상적인 정보 처리와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 정보 임계치는 정보 회피(1-1)와 정보의 피상적 처리(1-2)와는 부적인 관계를 갖지만, 정보 탐색(1-3)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1-4)와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RISP 에 대해 메타 분석을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가 느끼는 현재 정보량 그 자체로도 정보 추구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Yang et al, 2014a).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현재 정보량이 정보 추구·처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가지는지를 탐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정보량과 정보 추구·처리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현재 정보량은 정보 회피(1-1), 정보 탐색(1-2), 정보의 피상적 처리(1-3), 정보의 체계적 처리(1-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으로 RISP모델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원 믿음이 정보 추구·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수집 능력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정보 탐색과 정보 체계적 처리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Kahlor et al., 2003; ter Huurne et al., 2009; Lu, 2015). 정보원 믿음 구성 요소 중 얼마나 정보원이 왜곡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변수는 피상적 처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정보원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변수는 체계적 처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Griffin et al., 2008). 그런데, 그림 1에서의 RISP 모델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 변수들이 정보 추구·처리 정도에 어떤 조절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연구 결과가 없다. 허서현과 김영옥(2015)은 위협의 종류를 위협 주체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위협 주체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위협의 경우(불산 확산 위협)나 책임성이 모호한 경우(태풍) 모두 정보원 믿음은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책임성이 모호한 위협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에 대해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김영옥, 이현승, 이해진과 김혜인(2017)이 미세먼지 위협에 대해 RISP 모델을 적용하여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불충분성이 피상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고, 정보원 믿음 역시 정보 불충분성이 피상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직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이 정보 추구·처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 정보 추구·처리 행동에 대한 태도가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처리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연구문제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a. 정보 수집 능력은 현재 정보량이 정보 회피(2a-1), 정보 탐색(2a-2), 정보의 피상적 처리(2a-3), 정보의 체계적 처리(2a-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b.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임계치가 정보 회피(2b-1), 정보 탐색(2b-2), 정보의 피상적 처리(2b-3), 정보의 체계적 처리(2b-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a. 정보원 믿음(타당성)은 현재 정보량이 정보 회피(3a-1), 정보 탐색(4a-2), 정보의 피상적 처리(3a-3), 정보의 체계적 처리(3a-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b. 정보원 믿음(타당성)은 정보 임계치가 정보 회피(3b-1), 정보 탐색(3b-2), 정보의 피상적 처리(3b-3), 정보의 체계적 처리(3b-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c. 정보원 믿음(비왜곡성)은 현재 정보량이 정보 회피(3c-1), 정보 탐색(3c-2), 정보의 피상적 처리(3c-3), 정보의 체계적 처리(3c-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d. 정보원 믿음(비왜곡성)은 정보 임계치가 정보 회피(3d-1), 정보 탐색(3d-2), 정보의

피상적 처리(3d-3), 정보의 체계적 처리(3d-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마지막으로, RISP 모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미디어에 대한 믿음을 묻기보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위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향이 위험 정보에 대한 추구와 처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을 한다(Griffin, Dunwoody, & Yang, 2013). 이 제안을 받아들여 ‘행동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정보 탐색과 정보 체계적 처리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였다(Kahlor, 2007). 특히 기후변화 대비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의 현저성을 위험 요소로 확인했던 연구에서 행동 태도는 정보 체계적 처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Yang et al, 2014c). 하지만 이 행동 태도가 기존의 정보원에 대한 믿음 변수처럼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탐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통해 행동 태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a. 행동 태도는 현재 정보량이 정보 회피(4a-1), 정보 탐색(4a-2), 정보의 피상적 처리(4a-3), 정보의 체계적 처리(4a-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4b. 행동 태도는 정보 입계처가 정보 회피(4b-1), 정보 탐색(4b-2), 정보의 피상적 처리(4b-3), 정보의 체계적 처리(4b-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3.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420명의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회사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전국 패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응답자의 표본은 남성 50.0%(210명), 여성 50.0%(210명)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4.8%(104명), 30대가 25.2%(106명), 40대가 25.2%(106명), 50대가 24.8%(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69.8%(293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18.6%(78명), 대학원 재학 이상이 11.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학사 수준이 33.6%(141명)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32.6%(137명), 중학교 졸업자가 14.0%(59명), 초등학교 졸업자가 12.4%(52

명), 그리고 대학원 재학 이상이 7.4%(31명)이었다. 평균 가정 월 소득의 경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6.9%(71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6.7%(70명),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6.2%(68명),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이 14.5%(61명)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교육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월 가정 소득은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고 주성분 분석을 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을 넣은 이유는 한국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많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최연실, 2014),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방하남·김기현, 2003; 변수용·김경근, 2010).

응답자들은 RISP 모델의 변수에 맞추어 정보 처리 및 추구 의도, 정보 불충분성, 인지된 위험의 특성,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주관적인 정보 규범(명령적 규범, 설명적 규범),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 행동 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2) 측정 변수 조작화

(1) 종속변수

정보 추구 의도는 정보의 탐색과 회피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되었다. 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RISP 모델에서 검증된 문항을 사용한 연구(Griffin et al., 2004; Yang & Kahlor, 2012; Yang, Kahlor & Li, 2014; 허서현·김영욱, 2015)를 본 연구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보의 탐색(Cronbach's $\alpha = .91$)은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를 포함한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의 회피(Cronbach's $\alpha = .94$)는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를 피한다.'를 포함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정보 처리 형태는 피상적 처리와 체계적 처리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정보 처리 의도를 측정할 기존 연구(Griffin et al., 2004; Kahlor et al., 2006)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 정보의 피상적 처리(Cronbach's $\alpha = .75$)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볼 때, 나는 그 정보를 매우 가볍게 대한다.'를 포함한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보의 체계적 처리(Cronbach's $\alpha = .86$)는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본다.'를 포함한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2) 독립변수

가. 정보 불충분성

정보 불충분성은 기존 RISP 모델을 사용한 문헌에 따라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현재 가진 정보의 양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즉, 현재 기후 변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0점(어떠한 정보도 필요 없다)에서 100점(모든 정보가 필요하다) 사이의 점수로,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0점(기후변화에 대해서 모른다)에서 100점(기후변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불충분성을 정보 임계치에서 현재의 정보의 양을 뺄셈하여 조작화하였으나, 개념적으로 정보 임계치에서 현재 정보량을 빼는 것이 정보의 불충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으며, RISP 모델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현재의 정보의 양을 사람들이 더 쉽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정보의 양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 추구·처리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한 연구(Yang et al., 2014a)와, 실험을 통해 현재 정보량과 정보 임계치를 구분한 연구(Hwang & Jeong, 2016)를 반영하여 두 개의 다른 변수로 각각 코딩하였다.

나. 정보원 믿음

정보원에 대한 신뢰 문항은 정보원 타당성과 정보원 비왜곡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그리핀과 동료들(Griffin, Neuwirth, Giese & Dunwoody, 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였다. 정보원 비왜곡성은 기존의 왜곡성을 역코딩하여 정보원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는 정도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뉴스 미디어는 그들의 편견과 이익을 뉴스에 반영한다.’를 포함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alpha = .86$). 이 질문은 정보원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는 정도로 해석하였다.

정보원 타당성 문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같은 정보가 다양한 곳에서 보도될 때 더 신뢰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 총 3문항이다(Cronbach's $\alpha = .84$).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정보원 타당성의 경우 정보원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두 개의 차원(타당성과 비왜곡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다. 행동 태도

행동 태도는 문항은 양과 카홀러(Yang & Kahlor, 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정보를 찾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양 극단의 형용사로 표현하였다. 이때의 형용사는 '가치 없다.'와 '가치 있다.', '나쁘다.'와 '좋은 일이다.'를 포함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상반된 두 개의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다(Cronbach's $\alpha = .94$). 응답자들은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까지 7개의 척도로 응답하였다.

라. 정보 수집 능력

정보 수집 능력은 카홀러과 동료들(Kahlor et al., 2006)의 RISP모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를 포함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 = .92$).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3) 통제변수: 개인적 특성, 인지된 위협의 특성, 감정적 반응, 주관적 규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연령, 젠더, 거주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정치적 성향, 결혼 상태, 그리고 가족 중 기후변화와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의 경우 진보, 보수, 중립을 물어보아, 각각 진보와 보수를 1로 하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코딩하였다. 젠더의 경우 우선 여성과 남성인지를 물어본 후, 남성을 1로 여성을 0으로 코딩하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 소득을 물어보아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하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수를 생성하였고,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평균 중심화하였다.

문화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네 가지 세계관 중, 운명주의와 위계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는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척도는 데이크(Dake, 1991; 1992)와 리플(Rippl, 2002)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활용하였다. 개인주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를 포함한 3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84$). 평등주의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를 포함한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79$).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체면의 경우 김영욱과 양정은(201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체면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다음 상황에서 당신은 얼마나 체면을 잃는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1점 ‘체면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에서 7점 ‘매우 체면을 잃는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체면은 기존의 연구를 따라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사회적 체면(Cronbach's $\alpha = .92$)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를 포함한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체면(Cronbach's $\alpha = .94$)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를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한국에서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이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한국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인지된 위협의 특성은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제도 신뢰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각각 기존의 RISP모델을 사용한 문헌(Yang & Kahlor, 2012; Yang et al., 2014b; 허서현과 김영옥, 2015)에 따라 위협인지 중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제도 신뢰에 관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문항을 활용하였다. 우선 발생가능성(Cronbach's $\alpha = .92$)은 ‘향후 인근 거주 지역 및 직장에서 기후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를 포함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심각성(Cronbach's $\alpha = .94$)에 관련한 문항은 ‘인근 거주 지역 및 직장에서 기후 변화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를 포함하여 총 5개이다. 제도 신뢰(Cronbach's $\alpha = .82$) 문항은 ‘정부는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일을 한다.’를 포함한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양과 동료 연구자들(Yang et al., 2014b)의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위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기후 변화가 걱정된다.’를 포함한 총 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Cronbach's $\alpha = .93$).

정보의 주관적 규범(Cronbach's $\alpha = .92$)은 기존의 문헌에 따라 설명적 규범(Descriptive Norm)과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으로 나누어 측정된 후, 한 가지 차원으로 합쳐 분석하였다. 설명적 규범 문항의 경우 허서현과 김영옥(2015)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부모님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한다.’를 포함하여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령적 규범 문항은 양과 동료 연구자들(Yang et al., 2014b)의 문항을 구성하여 ‘나는 내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총 5개 문항이다.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3) 분석 방법

해당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각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의 첫 번째 모델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정보 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지된 위험 특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 정보 추구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 규범을 투입하여 정보 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주요한 독립 변수인 정보 불충분성 변수와 정보원에 대한 믿음, 행동 태도, 정보 수집 능력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모델에는 각 세 변수와 정보 불충분성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각 변수들을 모두 평균 중심화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4.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주요한 변수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표1과 같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항목들의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았다. 정보 회피의 평균은 2.98(SD=1.00), 정보 탐색의 평균은 4.48(SD=.86), 피상적 처리의 평균은 3.65(SD=.92), 체계적 처리의 평균은 4.62(SD=.84)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평균은 52.46(SD=18.94),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정보량(정보 임계치)의 평균은 50.72(SD=22.46)으로 나타났다. 행동 태도의 평균은 5.24(SD=.98), 정보원에 대한 타당성 믿음의 평균은 4.90(SD=.97), 정보원에 대한 비왜곡성 믿음의 평균은 3.40(SD=.92),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의 평균은 4.07(SD=.86)로 나타났다. 개인적 사회문화적 특성인 평등주의의 평균은 5.15(SD=.98)이고 개인주의의 평균은 5.18(SD=.97)이었으며, 사회적 체면의 평균은 4.21(SD=.96)이고 개인적 체면의 평균은 4.80(SD=.87)이었다. 인지된 위험 특성을 구성하는 위협의 발생 가능성의 평균은 5.18(SD=.92), 위협의 심각성의 평균은 5.48(SD=1.04),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3.84(SD=1.16)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주관적 규범의 평균은 3.87(SD=.92)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n = 42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정보 추구·처리 행태		
회피	2.98	1.00
탐색	4.48	.86
피상적 처리	3.65	.92
체계적 처리	4.62	.84
정보 불충분성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52.46	18.94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양	50.72	22.46
정보 수집 능력	4.07	.86
정보원 믿음		
타당성	4.90	.97
비왜곡성	3.40	.92
행동 태도	5.24	.98
사회문화적 특성		
평등주의	5.15	.98
개인주의	5.18	.97
사회적 체면	4.21	.96
개인적 체면	4.80	.87
인지된 위험 특성		
발생 가능성	5.18	.92
심각성	5.48	1.04
제도 신뢰	3.84	1.16
부정적 감정	4.63	1.13
주관적 정보 규범	3.87	.92

2) 정보 추구·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분석

정보 추구·처리의 네 가지 변수에 대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는 통제 변수인 개인적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사회문화적 특성), 인지된 위험의 특성, 부정적 감정, 주관적 정보 규범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델에는 주된 독립변수인 현재 정보량과 정보 임계치, 이들을 조절할 것으로 가정되는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에 대한 믿음(타당성·비왜곡성), 행동에 대한 태도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모델에는 이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2에서는 통제변수만 투입하였던 모델1을 제외하고 모델2와 모델3의 결과만을 보고한다.

우선, 정보 회피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델에서는 정보의 불충분성이 정보 회피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 것도 유의하지 않았으며(〈가설 1-1〉 기각, 〈연구문제 1-1〉),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 행동 태도 역시 정보의 불충분성이 정보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았다(〈연구문제 2a-1〉, 〈연구문제 2b-1〉, 〈연구문제 3a-1〉, 〈연구문제 3b-1〉, 〈연구문제 3c-1〉,

〈연구문제 3d-1〉, 〈연구문제 4a-1〉, 〈연구문제 4b-1〉.

다음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델의 결과에서도 정보의 불충분성이 정보 탐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1-3〉, 〈연구문제 1-2〉). 다만, 정보 탐색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델은 조절효과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력이 증가함으로써($\Delta R^2 = .02$, $p < 0.05$),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 탐색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델의 세 번째 모델에서, 현재 정보량에 대해 정보원 믿음(타당성)의 조절 효과($\beta = 0.13$, $p < 0.05$)와 정보 임계치에 대해 정보 추구 행동 태도가 갖는 조절 효과($\beta = 0.13$,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보원 타당성이 높은 경우 현재 정보량이 증가하면 기후변화 정보 탐색 정도도 증가하지만, 정보원 타당성이 낮은 경우 현재 정보량이 증가하여도 기후변화 정보 탐색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그림 2 참조). 마찬가지로 행동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경우 정보 임계치가 증가하면 기후변화 정보 탐색 정도도 증가하지만 행동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경우 정보 임계치가 증가하면 기후변화 정보 탐색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에 대해서도 현재 정보량과 정보 임계치가 갖는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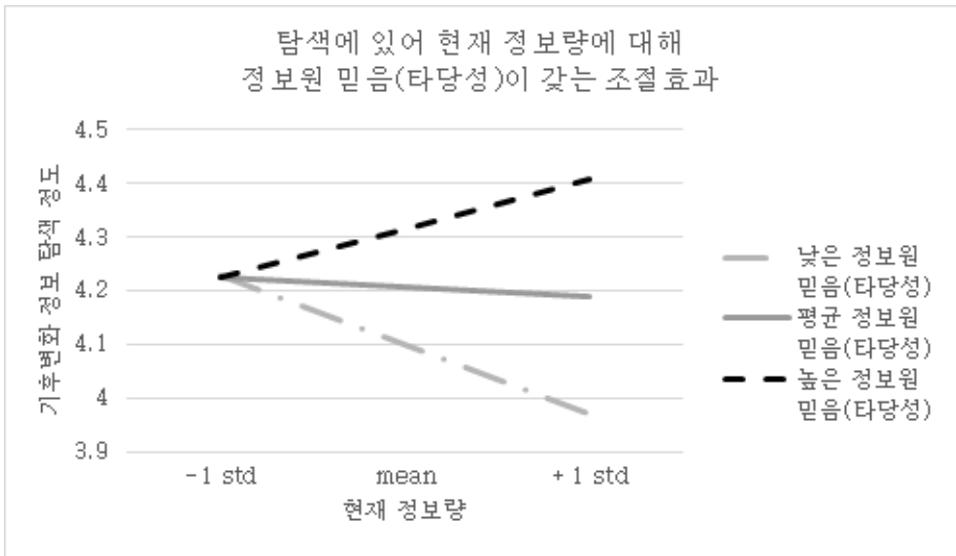


그림 2. 탐색에 있어 현재 정보량과 정보원 믿음(타당성)이 갖는 상호작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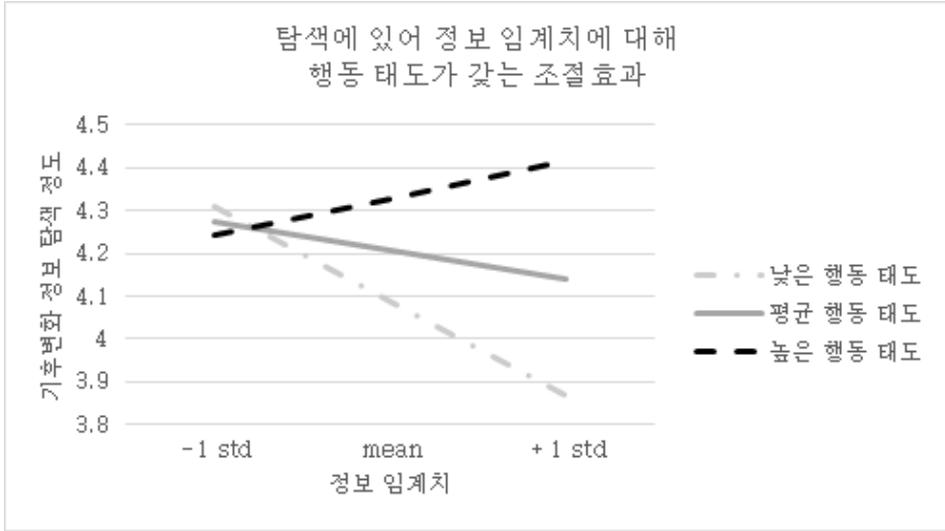


그림 3. 탐색에 있어 정보 임계치와 행동 태도가 갖는 상호작용 그래프

표 2. 정보 추구에 대한 두 가지 종속변수(회피, 탐색)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회피 모델 2			회피 모델 3			탐색 모델 2			탐색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84		16.75	2.82		16.68	4.19		31.22	4.21		31.54
개인적 특성												
나이	.00	.03	.48	.00	.04	.81	.01	.13	2.70**	.01	.12	2.40*
젠더	.11	.05	1.24	.12	.06	1.35	-.10	-.06	-1.46	-.08	-.05	-1.20
SES	-.00	-.00	-.07	.01	.01	.18	.05	.06	1.59	.05	.06	1.42
정치진보성향	.00	.00	.02	.01	.00	.05	.07	.04	.94	.06	.03	.82
정치보수성향	-.04	-.01	-.31	-.08	-.03	-.58	-.17	-.06	-1.60	-.16	-.06	-1.53
결혼 상태	-.03	-.01	-.27	-.01	-.00	-.06	-.12	-.07	-1.42	-.13	-.08	-1.63
가족병력	.05	.03	.60	.06	.03	.69	.03	.02	.48	.05	.03	.66
평등주의	-.17	-.17	-3.27**	-.15	-.15	-2.93**	.09	.10	2.21*	.07	.08	1.75*
개인주의	-.08	-.08	-1.51	-.05	-.05	-1.00	-.02	-.03	-.54	-.05	-.06	-1.23
사회적 체면	.29	.28	5.16**	.28	.26	4.79**	-.10	-.11	-2.24*	-.10	-.11	-2.15*
개인적 체면	-.2	-.22	-3.53**	-.26	-.23	-3.55**	.14	.14	2.45*	.17	.17	2.88**
인지된 위험												
발생 가능성	.06	.05	.77	.04	.04	.54	.04	.05	.78	.05	.05	.87
심각성	-.22	-.23	-3.38**	-.22	-.23	-3.35**	.14	.16	2.60**	.15	.18	2.86**
제도 신뢰	.11	.13	2.91**	.12	.14	3.06**	.02	.03	.66	.01	.02	.47
부정적 감정	.03	.04	.64	.04	.05	.83	.01	.01	.20	-.00	-.00	-.01
주관적 규범	.09	.08	1.46	.09	.08	1.46	.20	.22	4.19**	.21	.22	4.22**
정보 불충분성												
현재정보량	-.01	-.11	-1.88	-.01	-.12	-2.07	-.00	-.03	-.54	-.00	-.03	-.60
정보 임계치	-.00	-.02	-.42	-.00	-.02	-.39	.00	.08	1.64	.00	.08	1.54
수집 능력	.06	.05	.89	.06	.05	.88	.11	.11	1.95	.10	.10	1.74
정보원 믿음												
타당성	-.07	-.07	-1.22	-.07	-.07	-1.24	.11	.12	2.39*	.11	.13	2.43*
비왜곡성	-.15	-.14	-3.06**	-.16	-.15	-3.20**	.01	.01	.25	.01	.02	.34

변수	회피 모델 2			회피 모델 3			탐색 모델 2			탐색 모델 3		
행동 태도	-.26	-.25	-5.17**	-.26	-.26	-5.23**	.12	.14	3.03**	.12	.14	3.11**
조절 효과												
현재정보량 x 수집 능력				-.00	-.02	-.34				-.00	-.04	-.63
현재정보량 x 타당성				-.01	-.14	-2.01				.01	.13	2.10*
현재정보량 x 비왜곡성				-.00	-.01	-.19				.00	.09	1.59
현재정보량 x 행동 태도				.00	.06	.91				-.00	-.04	-.69
정보 임계치 x 수집 능력				-.00	-.06	-.85				.00	.06	.93
정보 임계치 x 타당성				.00	.04	.53				-.00	-.03	2.20
정보 임계치 x 비왜곡성				-.00	-.01	-.20				.00	.04	-.43
정보 임계치 x 행동 태도				-.01	-.11	-1.73				.01	.13	.63*
R ² 변화량		.04**			.02			.03**			.02*	

*: p<.05 **:p<.01

주: 통제변수모델(모델 1)은 표에서 생략됨.

지금까지 정보 추구에 대한 결과를 보았다면, 다음으로 정보 처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정보 추구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모델에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사회문화적 특성), 인지된 위험의 특성, 부정적 감정, 주관적 정보 규범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델에는 주된 독립변수인 정보의 불충분성과 이들을 조절할 것으로 가정되는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에 대한 믿음(타당성·비왜곡성), 행동에 대한 태도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모델에는 이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3〉에서는 통제변수만 투입하였던 모델1을 제외하고 모델2와 모델3의 결과만을 보고한다.

피상적 처리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델 중 두 번째 모델(정보의 불충분성 관련변수 투입)의 결과를 보면 피상적 처리에 대해 정보 임계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beta = -.12, p < 0.05$)으로 나타났다(가설1-2) 검증). 피상적 처리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델의 세 번째 모델은 두 번째 모델에 비해 설명력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Delta R^2 = .02$), 현재 정보량에 대해 정보원 믿음(비왜곡성)이 갖는 조절 효과($\beta = -.15,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연구문제 3c). 〈그림 4〉는 현재 정보량과 정보원 믿음(비왜곡성)이 갖는 상호작용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정보량이 같은 경우,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피상적 처리 정도는 그 개인이 얼마나 정보원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믿는가에 따라 조절되고 있다. 이 조절효과를 결과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정보원 믿음(비왜곡성)이 평균보다 낮다면 현재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피상적 처리 정도가 높아진다. 반면, 정보원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믿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을 때 현재 정보량이 많아질

수록 피상적 처리 정도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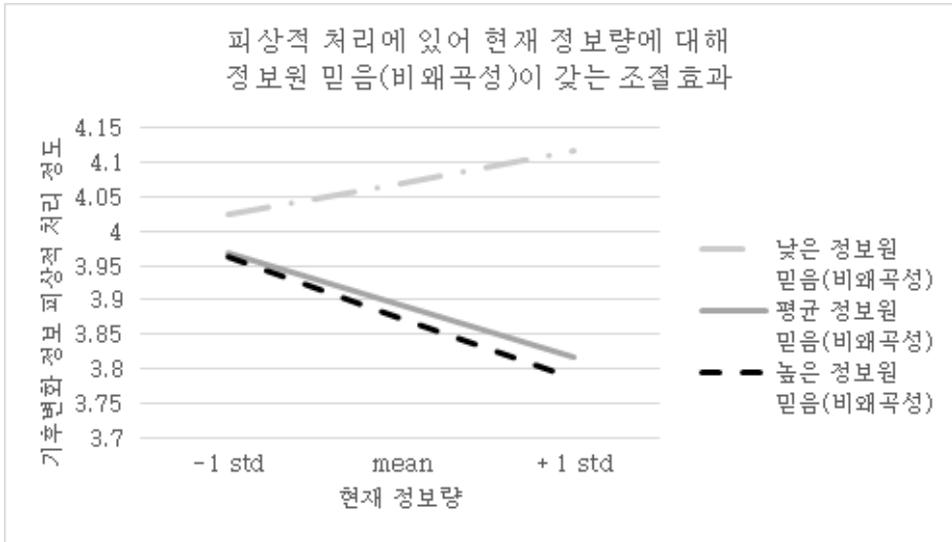


그림 4. 피상적 처리에 있어 현재 정보량과 정보원 믿음(비왜곡성)이 갖는 상호작용 그래프

마지막으로 체계적 처리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델 중 정보의 불충분성 관련 변수를 투입한 두 번째 모델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정보량이 체계적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beta = .12, p < 0.05$)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4〉).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타당성·비왜곡성), 행동 태도가 정보의 불충분성 변수와 갖는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모델3은 모델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설명력을 높였다($\Delta R^2 = .04, p < 0.01$). 특히, 정보원 믿음(타당성, 비왜곡성)과 행동 태도가 현재 정보량에 대해 가지는 조절 효과와 정보 임계치에 대해 행동 태도가 가지는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조절 효과들은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현재 정보량이 체계적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원 타당성($\beta = .17, p < 0.01$), 정보원 비왜곡성($\beta = .13, p < 0.01$), 행동 태도($\beta = -.18, p < 0.01$)에 의해 조절되었으며, 정보 임계치가 체계적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행동 태도($\beta = .15, p < 0.01$)에 의해 조절되었다. 만약 현재 정보량이 평균 이상일 때, 정보원 타당성과 정보원 비왜곡성도 평균 이상이라면 체계적 처리 정도는 증가한다(〈그림 5〉, 〈그림 6〉 참조). 정보 임계치가 평균 이상일 때 행동 태도가 평균 이상이라면 체계적 처리 정도는 증가한다(〈그림 8〉 참조). 반면, 현재 정보량이 평균 이상일 때, 행동 태도가 평균 이상이라면 체계적 처리 정도는 감소한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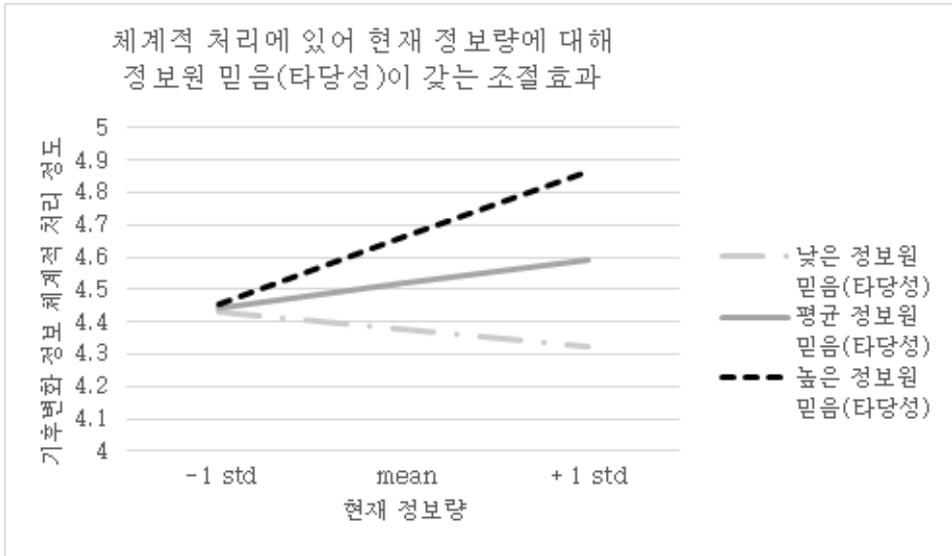


그림 5. 체계적 처리에 있어 현재 정보량과 정보원 타당성이 보이는 상호작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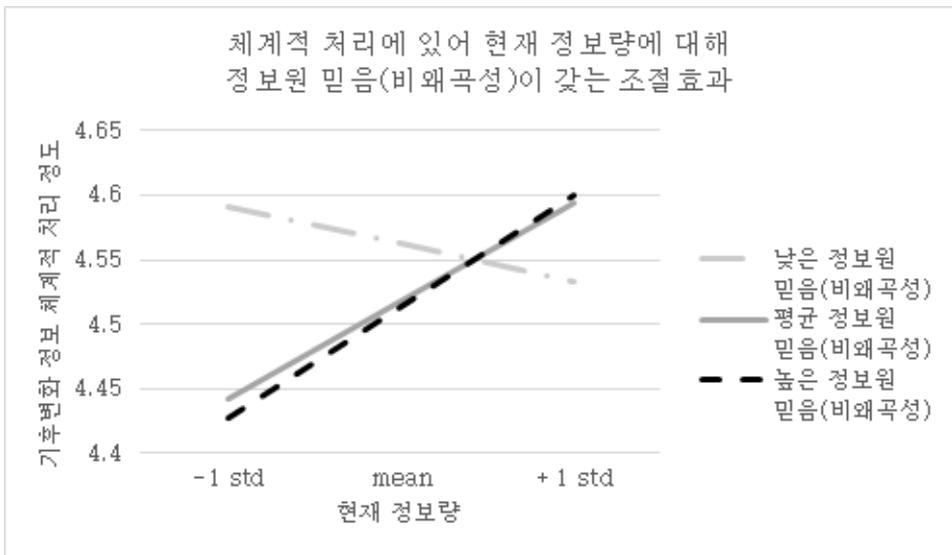


그림 6. 체계적 처리에 있어 현재 정보량과 정보원 비왜곡성이 보이는 상호작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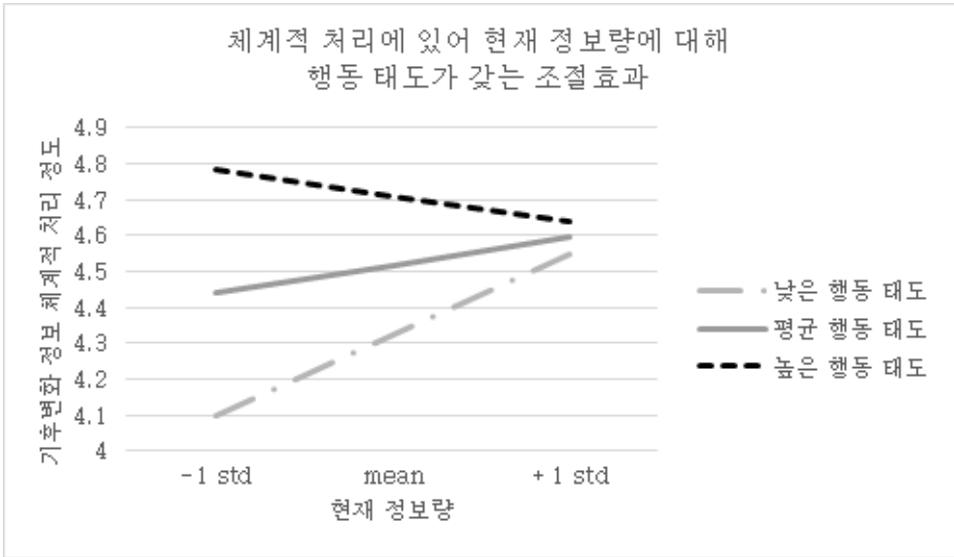


그림 7. 체계적 처리에 있어 현재 정보량과 행동 태도가 보이는 상호작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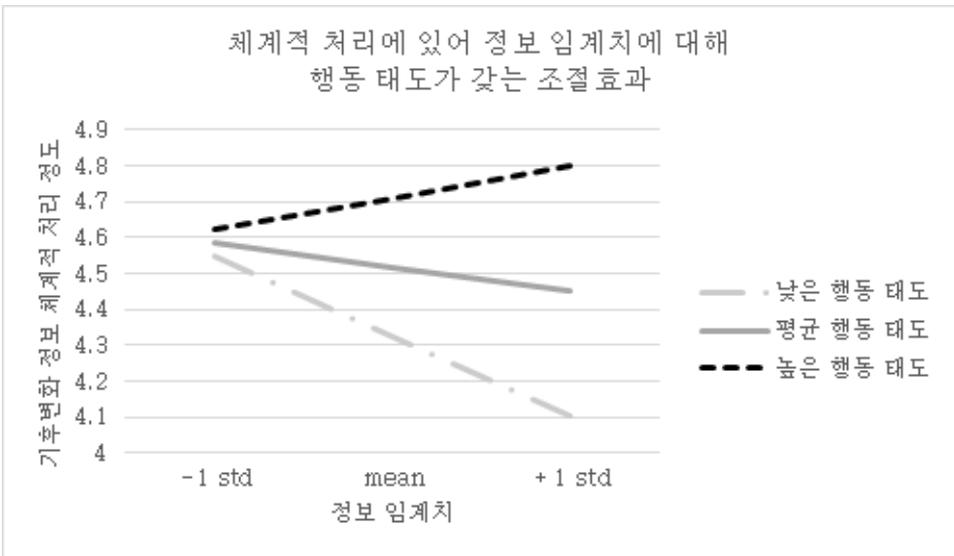


그림 8. 체계적 처리에 있어 정보 임계치와 행동 태도가 보이는 상호작용 그래프

표 3. 정보처리에 대한 두 가지 종속변수(피상적 처리, 체계적 처리)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피상적 처리 모델 2			피상적 처리 모델 3			체계적 처리 모델 2			체계적 처리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93		22.25	3.89		22.28	4.53		34.57	4.52		35.20
개인적 특성												
나이	-.01	-.11	-1.92	-.01	-.09	-1.48	.01	.06	1.31	.00	.06	1.22
젠더	.04	.02	.44	.01	.01	.11	.03	.02	.50	.04	.02	.59
SES	-.02	-.02	-.48	-.01	-.01	-.27	.07	.08	2.02*	.05	.06	1.68
정치진보성향	-.03	-.02	-.31	-.02	-.01	-.16	-.11	-.06	-1.50	-.11	-.06	-1.59
정치보수성향	.12	.04	.88	.14	.05	1.01	-.08	-.03	-.79	-.08	-.03	-.72
결혼 상태	.09	.05	.80	.10	.06	.96	-.11	-.06	-1.34	-.12	-.07	-1.56
가족병력	.04	.02	.46	.03	.01	.27	-.02	-.01	-.27	-.02	-.01	-.22
평등주의	-.10	-.10	-1.77	-.07	-.07	-1.27	.12	.14	2.92**	.09	.10	2.19*
개인주의	.01	.01	.24	.06	.06	1.07	-.02	-.02	-.46	-.04	-.05	-1.09
사회적 체면	.31	.32	5.24**	.31	.32	5.17**	-.08	-.09	-1.74	-.09	-.11	-2.16*
개인적 체면	-.26	-.24	-3.43**	-.30	-.29	-4.02**	.09	.09	1.61	.14	.15	2.55*
인지된 위험												
발생 가능성	.01	.01	.11	-.01	-.01	-.06	.01	.01	.18	.00	.00	.02
심각성	-.04	-.04	-.57	-.06	-.07	-.86	.05	.06	.93	.06	.08	1.26
제도 신뢰	.11	.14	2.85**	.12	.15	3.00**	-.02	-.03	-.68	-.03	-.03	-.84
부정적 감정	-.14	-.17	-2.68**	-.13	-.16	-2.45*	-.02	-.02	-.45	-.02	-.02	-.42
주관적 규범	.02	.02	.39	.02	.02	.38	.16	.17	3.38**	.17	.19	3.69**
정보 불충분성												
현재정보량	-.00	-.09	-1.39	-.00	-.09	-1.39	.01	.12	2.30*	.00	.09	1.72
정보 임계치	-.01	-.12	-1.99*	-.01	-.11	-1.75	-.00	-.06	-1.20	-.00	-.07	-1.30
수집 능력	.05	.05	.70	.08	.07	1.05	.18	.18	3.31**	.19	.20	3.64**
정보원 믿음												
타당성	.05	.05	.78	.03	.03	.43	.15	.17	3.40**	.15	.17	3.37**
비왜곡성	-.19	-.20	-3.77**	-.19	-.20	-3.74**	-.05	-.05	-1.17	-.05	-.05	-1.26
행동 태도	-.08	-.08	-1.46	-.07	-.07	-1.27	.19	.23	5.06**	.20	.23	5.16**
조절 효과												
현재정보량 x 수집 능력				-.00	-.04	-.51				.00	.03	.44
현재정보량 x 타당성				-.01	-.10	-1.34				.01	.17	2.75**
현재정보량 x 비왜곡성				-.01	-.15	-2.13*				.01	.13	2.38*
현재정보량 x 행동 태도				.00	.02	.32				-.01	-.18	-3.12**
정보 임계치 x 수집 능력				-.00	-.03	-.45				.00	.04	.75
정보 임계치 x 타당성				-.00	-.09	-1.16				-.00	-.11	-1.82
정보 임계치 x 비왜곡성				-.00	-.06	-.90				.00	.03	.55
정보 임계치 x 행동 태도				-.00	-.07	-1.08				.01	.17	3.14**
R ² 변화량		0.06**			.04**			.09**			.04**	

*: p<.05 **: p<0.01

주: 통제변수모델(모델 1)은 표에서 생략됨.

5. 결론 및 논의

RISP 모델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지를 다양한 변수들의 관련성을 통하여 파악하는 모델이다. 특히 RISP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기반으로 위험을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Finucane, Alhakami, Slovic, & Johnson, 2000; Lo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에 미루어봤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양과 앞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식의 양을 근거로 앞으로의 위험 지식을 얼마나 노력을 들여 처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기후변화처럼 거대하고 모호한 위험에 대해 과학적인 정책을 계획할 때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RISP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라는 환경 위험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전 단계로서 위험에 대한 문화적 이론과 한국인의 체면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인 정보 추구·처리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의 RISP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시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 검증 및 연구문제 결과 정리

	회피	탐색	피상적 처리	체계적 처리
직접효과				
정보 임계치	가설 1-1	가설 1-3	가설 1-2	가설 1-4
현재 정보량	연구문제 1-1	연구문제 1-2	연구문제 1-3	연구문제 1-4
조절효과				
정보수집능력				
현재 정보량*	연구문제 2a-1	연구문제 2a-2	연구문제 2a-3	연구문제 2a-4
정보 수집 능력				
정보 임계치*	연구문제 2b-1	연구문제 2b-2	연구문제 2b-3	연구문제 2b-4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				
현재 정보량* 정보원 타당성	연구문제 3a-1	연구문제 3a-2	연구문제 3a-3	연구문제 3a-4
정보 임계치*	연구문제 3b-1	연구문제 3b-2	연구문제 3b-3	연구문제 3b-4
정보원 타당성				
현재 정보량* 정보원 비왜곡성	연구문제 3c-1	연구문제 3c-2	연구문제 3c-3	연구문제 3c-4
정보 임계치*	연구문제 3d-1	연구문제 3d-2	연구문제 3d-3	연구문제 3d-4
정보원 비왜곡성				
행동 태도				
현재 정보량*	연구문제 4a-1	연구문제 4a-2	연구문제 4a-3	연구문제 4a-4
행동 태도				
정보 임계치*	연구문제 4b-1	연구문제 4b-2	연구문제 4b-3	연구문제 4b-4
행동 태도				

주: 볼드 처리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된 가설 혹은 연구문제

연구의 결론은 <표 4>에 가설과 연구문제 중 검증이 된 것은 볼드처리를 하여 정리하였다. <가설 1>은 정보 임계치가 정보 회피(<가설1-1>)와 정보의 피상적 처리(<가설 1-2>)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보 탐색(<가설1-3>)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가설1-4>)와 정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가설 1-1>, <가설 1-3>, <가설 1-4>은 기각되었으나,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이는 그동안 체계적 처리나 탐색에 대해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이 체계적 처리나 탐색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더욱 집중하였지만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험 정보를 처리할 때 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위험 정보를 대충 처리하거나 회피하는 태도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종의 동기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정보 임계치)가 많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이 더욱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성심성의껏 노력을 들여 찾아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1>는 과연 현재 정보량이 정보 추구·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였다. 네 가지 정보 추구·처리 형태 중 오로지 체계적 처리(<연구문제 1-4>)에 대해서만 현재 정보량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론은 현재 정보량만으로도 RISP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한 양과 동료들(Yang et al., 2014a)의 메타 분석 결과를 일부 뒷받침한다.

<연구문제 2, 3, 4>는 정보 수집 능력, 정보원 믿음(타당성, 비왜곡성), 그리고 행동 태도가 정보의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지 질문하였다. 우선 <연구문제 3>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김영욱과 동료들의 연구(2017)나 허서현과 김영욱(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처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급한 두 연구 모두 책임 소재에 따라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처리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에 집중하지 않은 해당 연구의 결과만으로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정보원 믿음이 정보 불충분성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정보원의 타당성은 현재 정보량이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연구문제 3a-2>)과 체계적 처리(<연구문제 3a-4>)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보원 믿음이 낮은 경우 현재 정보량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보 추구·처리 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나타냈으며, 정보원 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현재 정보량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보 추구·처리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이 점에서 기후변화 정보 추구·처리 형태에 대해 정보원이 얼마나 타당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정보원이 타당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열심히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원 비왜곡성은 현재 정보량과 피상적 처리 사이의 관계(〈연구문제 3c-3〉)와 현재 정보량과 체계적 처리 사이의 관계(〈연구문제 3c-4〉)를 조절하였다. 정보원 비왜곡성이 낮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피상적 처리 의도가 높아지고 체계적 처리 의도가 낮아졌다. 반면, 정보원 비왜곡성이 높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피상적 처리 의도가 낮아지고 체계적 처리 의도가 높아졌다. 이는 정보원 타당성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보원이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기존에 기후변화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는 행동 태도가 정보 불충분성과 갖는 상호작용 효과를 질문하였다. 행동 태도는 현재 정보량과 체계적 처리(〈연구문제 4a-4〉)의 관계와 정보 임계치와 탐색 의도의 관계(〈연구문제 4b-2〉), 정보 임계치와 체계적 처리의 관계(〈연구문제 4b-4〉)를 조절하였다. 행동 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행동 태도가 높고 현재 정보량이 높은 경우 체계적 처리의 정도가 낮아졌지만, 행동 태도가 높고 정보 임계치가 높은 경우 탐색 정도가 높아지고 체계적 처리 정도가 높아지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행동 태도가 높는데 현재 정보량이 높다고 해서 체계적 처리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기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행동 태도는 기후변화 정보를 찾는 행동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면(현재 정보량이 많다고 느끼면) 행동 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라도 체계적인 처리를 할 동기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더 알아야 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정보 임계치가 높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위험 정보 탐색 및 체계적 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행동 태도가 높은 경우)에는 동기요인이 높아져서 체계적인 처리를 하거나 탐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두 경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행동 태도는 현재 정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동기요인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필요한 정보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경우에는(임계치가 높은 경우) 행동 태도가 좋을 때(정보를 찾는 행동이 좋다고 느끼는 경우) 체계적인 처리를 할 동기를 더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동 태도가 적극적인 정보 추구·처

리인 탐색이나 체계적 처리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카홀러(2007, 2010)가 정보원 믿음을 대신하여 행동 태도를 추가했던 수정된 RISP 모델을 뒷받침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미디어가 타당하고 왜곡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보를 파악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객관적이며 올바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동시에 한국인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정보원 믿음은 아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Griffin et al., 2008; Yang et al., 2014a; Lu, 2015) 잘 개념화하여 RISP 모델에 활용한다면 뉴스 미디어나 온라인 정보원들의 사용과 메시지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정보량이 정보 추구·처리와 갖는 주 효과는 체계적 처리에만 그쳤지만, 정보원 타당성, 정보원 비왜곡성, 행동 태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탐색, 피상적 처리, 체계적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RISP 모델에서는 위험을 인지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정보 추구·처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정의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보 임계치보다는 현재 정보량이 더 다양한 양상으로 정보 추구·처리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ISP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자아효능감 개념(Ajzen, 2002)을 통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많이 안다고 인지할수록 정보 추구·처리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자아효능감이 RISP 모델에 맞게 변형된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이 체계적 처리와 정적인 상관관계($\beta = .23, p < 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경로 모형을 활용하여 정보 불충분성, 정보원 믿음, 행동 태도, 정보 수집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와, 각 변수 사이의 매개 효과를 같이 확인한다면 현재 정보량이 정보 추구·처리를 설명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RISP 모델의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위험에 대한 문화이론 개념 중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와 한국인의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정보

회피와 체계적 처리에 대해 평등주의, 사회적 체면, 개인적 체면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탐색과 우발적 처리에 대해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회피와 피상적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체면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개인적 체면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체면이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개인적 체면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이론의 평등주의와 사회적 체면, 개인적 체면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 추구·처리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 상 RISP 모델에 기여하는 다른 개인적 특성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RISP 모델에 기여하는 개인적 특성이 정보 추구·처리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RISP모델을 통해 기후변화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 개인이 지각한 정보의 불충분성의 영향과 이 영향을 조절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RISP모델의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 및 처리 형태의 관계를 정보원에 대한 신뢰, 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각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문화변수의 영향력과 심리적인 변수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연구의 전단계로서 RISP모델의 중요변수인 정보 불충분성과 종속변수와의 관련성과 관련된 조절변수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개인의 심리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로 경로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배경과 심리적인 요인이 정보 추구·처리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처리 형태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체면 등 한국적인 문화변수에 대한 논의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 내에서 위험 정보의 추구하고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길호 (1992).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체면 전략. <한국언론학보>, 27호, 5-29.
- 김영옥 · 이현승 · 이혜진 · 김혜인 (2017).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공중들의 정보탐색과 처리에 대한 연구: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언론 정보원 신뢰, 책임 귀인과 경험 정도의 조절 효과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권 2호, 5-44.
- 방하남 · 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권 4호, 31-65.
- 변수용 · 김경근 (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권 1호, 73-102.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2016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URL: <http://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mmunityid/187/view.do?idx=22056>
- 이충원 · 김효창 (2006). 체면민감성, 자존증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0권 3호, 17-30.
- 최상진 ·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권 2호, 137-157.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들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권 4호, 75-89.
- 허서현 · 김영옥 (2015).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0권, 246-27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URL: [http://attfile.konetic.or.kr/konetic/xml/THEMA_INFO/T1A1A1220002\(1\)](http://attfile.konetic.or.kr/konetic/xml/THEMA_INFO/T1A1A1220002(1)).
- Aiken, L., West, S. & Reno,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 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_____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 70(9), 1-70.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renot, J., Bonnefous, & C. Marris. (1998). Testing the cultural theory of risk in France. *Risk Analysis*, 18(6), 729-740.
- Chaffe, S. H. (1986).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channels: Competitive convergent or complementary? In G. Gumpert & R. Cathcart (Eds.), *Intermedia* (3rd ed. p.62-80).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S., & Chaiken, S. (1999).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in its broader context. In S. Chaiken & Y. Trope (Eds), *Dual 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pp. 73-9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larke, C. E., & McComas, K. (2012). Seeking and processing influenza vaccine information: A study of health care workers at a large urban hospital. *Health Communication*, 27, 244-256.
- Dake, K. (1991).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of risk: An analysis of contemporary worldviews and cultural bia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2(1), 61-82.
- _____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 21-27.
- Dong, S. Z., & Tam, L. L. (2013). *Financial Risk Information Processing in Hong Kong: An Application of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Centre for Chinese Media and Comparative Communication Research
- Douglas, M. & Wildavsky, A. (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nwoody, S., & Griffin, R. J. (2015).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In H. Cho, T. Reimer, and K. A. McComas (Eds.), *SAGE Handbook of Risk Communication* (pp.102-11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Belmont, CA: Wadsworth.

- Ellis, R. J., & Thompson, F. (1997). Culture and the environment in the Pacific Northwe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885-897.
- Finucane, M., A. Alhakami, P. Slovic, & S. Johnson.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ural Decision Making*, 13, 1-17.
-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 127-152.
-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 S230-S245.
- Griffin, R. J., Powell, M., Dunwoody, S., Neuwirth, K., Clark, D., & Novotny, V. (2004). Testing the robustness of a risk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Griffin, R. J., Yang, Z., Boerner, F., Bourassa, S., Darrah, T., Knurek, S., & Dunwoody, S. (2005). Applying an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to a study of communication about energy. *I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nnual Conference*, San Antonio, Texas.
- Griffin, R. J., Yang, Z., ter Huurne, E., Boerner, F., Ortiz, S., & Dunwoody, S. (2008). After the flood ? Anger, attribution, and the seeking of information. *Science Communication*, 29(3), 285-315.
- Griffin, R.J., Neuwirth, K., Giese, J., & Dunwoody, S. (2002). Linking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and depth of processing. *Communication Research*, 29, 705-732.
- Huang, J., & Yang, Z. J. (2017). Risk, affect, and policy support: public perception of air pollution in Chin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281-297.
- Hwang, Y., & Jeong, S. (2016). 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information seeking: An experiment. *Science Communication*, 38(6), 679-698.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CO2>

- Kahlor, L. A. (2007). An augmented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 The case of global warming. *Media Psychology, 10*(3), 414-435.
- _____ (2010). PRISM: A planned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 *Health Communication, 25*, 345-356.
- Kahlor, L. A., Dunwoody, S., Griffin, R. J., Neuwirth, K. (2006). Seek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Impersonal Risk. *Science Communication, 28*, 163-194.
- Kahlor, L. A., Dunwoody, S., Griffin, R. J., Neuwirth, K., Giese, J. (2003). Studying heuristic-systematic processing of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23*(2), 355-367.
- Kim, Y., & Yang, J. (2011). The influence of Chemyon on facework and conflict styles: Searching for the Korean face and its impact. *Public Relations Review, 37*(1), 60-67.
- Lowenstein, G., Weber, E., Hsee, C., & Welch, E.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286.
- Lu, H. (2015). Burgers or tofu? Eating between two world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during dietary acculturation. *Health Communication, 30*(8), 758-771.
- Peters, E. M., Burraston, B., & Mertz, C. K. (2004). An emotion-based model of risk perception and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s of emotion, affective reactivity, world views, and risk perception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Risk Analysis, 24*(5), 1349-1367.
- Rippl, S. (2002). Cultural theory and risk perception: a proposal for a better measurement. *Journal of Risk Research, 5*(2), 147-165.
- Rubin, A. M. (2009). Uses and gratifications: An evolving perspective of media effects. In R. L. Nabi & M. B. Oliver (Eds). *The Sage handbook of media processes and effects*. Los Angeles: SAGE. 147-159.
- Sherif, M. (1935). A study of some social factors in perception. *Archive of Psychology, 27*(187), 1-60.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Risk Analysis, 24*, 1-12.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 56, 183-203.
- ter Huurne, E. F. J., Griffin, R. J., & Gutteling, J. M. (2009). Risk information seeking among U.S. and Dutch residents ? An application of the model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Science Communication*, 31(2), 215-237.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 329-349.
- Yang, J., & Kim, S. J. (2016). Cultural peculiarities and risk perception among Korean people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risk types. *Crisisonomy*, 12(6), 143-160.
- Yang, Z. J., & Kahlor, L. (2012). What, me worry? The role of affect in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Science Communication*, 35(2), 189-212.
- Yang, Z. J., Aloe, A. M., & Feeley, T. H. (2014a).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64(1), 20-41.
- Yang, Z. J., Kahlor, L., & Li, H. (2014b). A United States-China comparison of risk Information-Seeking intentions. *Communication Research*, 41(7), 936-960.
- Yang, Z. J., Rickard, L. N., Harrison, T. M., & Seo, M. (2014c). Applying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to examine suppor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Science Communication*, 36(3), 296-324.
- Zhao, X., Leiserowitz, A., Maibach, E. W., & Roser-Renouf, C. (2011). Attention to science/environment news positively predicts and attention to political news negatively predicts global warming risk perceptions and policy support. *Journal of Communication*, 61, 713-731.

최초 투고일 2018년 6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8년 9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8년 9월 26일

Abstract

Risk Seeking and Processing on Climate Chang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Channel Beliefs, and Behavioral Beliefs

Yungwook Kim

Professor,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Youngjee Kim

MA,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Soohyun Kim

MA Student,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risks are processed and pursued based on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Controlling cultural aspects of Koreans, such as egalitarianism, individualism, and Cheonyon sensitivity, the results showed that how a person judges his/her current knowledge on climate change had an impact on systematic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how much knowledge is neede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had an impact on heuristic processing. Also, the attitude of pursuing climate change information and judgments on information sources had moderating effects on information see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The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did not have moderating effect in the model.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ramific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Climate Chang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k Perception, Behavioral beliefs